

시어버터(shea butter)를 이용한 새로운 보습가공

후지보 홀딩스

후지보에서는 피부 친화성을 강조하여 일년 내내 쾌적하게 입을 수 있는 새로운 소재로서 시어버터 성분 함유가공과 ‘Pearl Laurel 가공’ 소재를 개발하였다. 이와 관련하여 자회사인 ANGLE에서는 2014년 추동시즌부터 이 두가지 소재를 사용한 여성용, 신사용 속옷을, 후지보 홀딩스에서는 원단 판매를 전개할 예정이다.

시어버터는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시어트리의 열매로부터 추출한 것으로 스테아르산(보습성분) 등이 80 % 함유된 식물성 유지성분이다. 상온에서는 고체로 존재하나 체온 근처에서 용해되기 때문에 오일이 아니라 ‘버터’로 불리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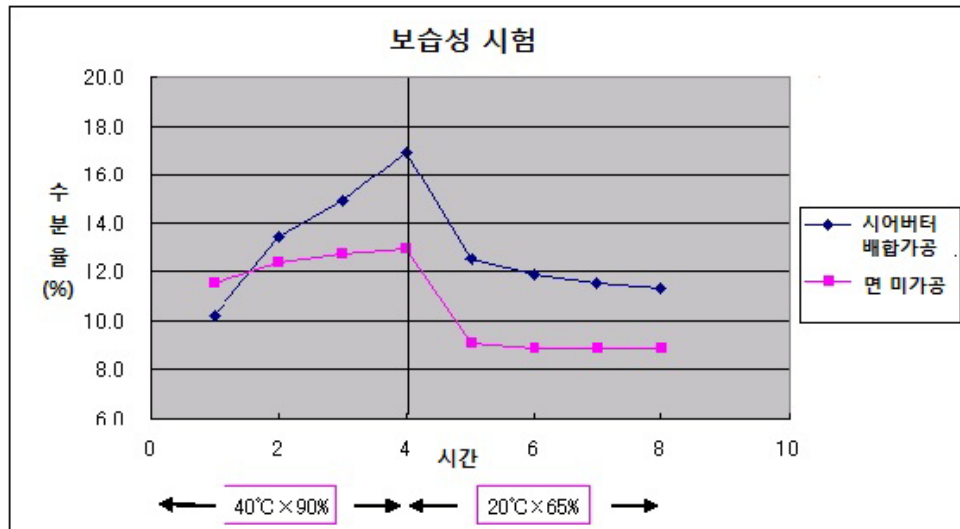
시어버터는 식용이나 약, 비누, 크림 등에 함유되어 사용되고 있으며, 나이지리아 등의 아프리카 등지에서 생산된다. 시어버터를 사용한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프랑스 룩시팡의 보습크림이 유명하다.

후지보 홀딩스는 이 시어버터 성분을 원단에 가공처리하는데 성공하였으며, 이것이 바로 시어버터 성분 함유가공이다.

이 가공방법 개발에 있어서 시어버터 성분을 함유한 가공제를 조제 메이커와 공동 개발하였다. 또한 이 가공은 시어버터에 추가적으로 알로에, 키토산 성분을 원단에 부여한 것 외에 원단도 면과 우유단백질을 혼입한 레이온 ‘Millet (다이와보 레이온)’ 혼방사(혼방률 50 %)를 사용하여, 보습성을 더욱 높였다. 이러한 각종 보습성분의 부여로 시어버터 함유가공 소재는 당사의 시험결과, 면섬유 미가공제품에 비해 약 30 % 보습성이 향상되었다.

또한 이 시어버터 성분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, 이 가공소재를 적용한 속옷은 착용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습성이 서서히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.

이 가공소재를 사용한 첫번째 상품으로는 ANGLE사의 ‘SOFT & FIT’ 브랜드로 차세대 기혼여성을 타겟으로 한 부인용 속옷 ‘美 Style’ 시리즈로 전개하고 있다.



♣ 섬유뉴스(2014.4.8)